

文의장-여야 5당 “협치국회 만들자”



2018. 9. 5.(수) 12:00, 국회 사랑채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의당 이정미(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선거제도 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을 위해 ‘협치’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문 의장이 주재한 이날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정당대회를 마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즐겨 쓴다. 촛불 혁명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아나더라든(여야 5당 회동)을 정례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많고,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5당 대표들, 국회 사랑채서 첫 오찬회동 문희상 의장 “대한민국 도약 계기 될 것”

며 “심의를 앞서 5당 대표가 모여 협치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장이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당대표 간에 대화 가 많지 않았다”며 “오늘이 첫 모임인데 이게 정례화해서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병준 한국당 위원장은 “현안이 대단히 많고 사회 변화도 급속히 진행되다보니 이견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국가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의장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반갑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모든 것이 청와대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지진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국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갈 때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며 “올리갈 때 못 봤던 것들을 잘 헤아려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실 이번 정기국회가 저로서는 너무나 절박하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를 담은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만큼은 어떤 때보다 합심해 문제를 풀어야 할 조건이 무리였다”며 “문 의장의 의지가 강하고 모든 대표들도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다짐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끌고 가달라”고 당부했다.

오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 문 의장이 이정미 대표를 향해 “여긴 다 올드보이인데(이 대표만) 영(Young)하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제가 어디가서 영하다는 얘기를 듣기엔...”이라고 화답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가 득권 지키려고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근로자의 3%로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화된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가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정책을 실시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다”라며 “본질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이 강성 귀족노조에 의해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독일의 현재 변영은 슈뢰더 전 총리 시절에 하르트 노동개혁을 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한국당, 이번 청문회 ‘유은혜’ 타깃 집중

“국민 여론 상반되는 정책 주장”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갈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게만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명철회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 의원 시절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교사 채용 등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정책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최근에는 감질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이 장관이 되면 비준되는 관행을 깨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비주거식 청문회’는 없을 것이란 선포하며 유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 특히 과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사용했다며 ‘감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영란법 수사인”이라며 당국의 수사도 촉구했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게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는 교육부 수장 자리와 사회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사회부총리 역할이 맡겨진 만큼 자질·능력을 철저하게 검증,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일으킨 혼선 등 오락가락 행보로 여론의 불매를 맞아 한국당이 더욱 견제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현역 불매 신화’가 깨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를 떠나 함께 원내활동을 해온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청문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정서권 관례다. 또 유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과의 관계도 두루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새민금 신공항 건설 반대 취지 발언

평화당 “대통령·당대표 ‘엇박자’”

민주평화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민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엇박자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유성엽·김종희·김광수·박주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민금 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이 대

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민금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면서 “올해 새민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반영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망언과 공화

“무안공항 이용 이 대표 말에 전북지역 분노 하늘 찢어”

“문 대통령 공약임에도 공항건설 용역비 25억 전액 삭감”

표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은 “‘새민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전남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전북도민들과 재경 전북 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

건설 용역비 2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새민금 공항 건설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당은 “이 대표는 망언에 대해 전북도민들과 향우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새민금 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2기 내각 장관후보자들 의혹 통상수준 넘어...온정적 청문회 비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서 제기되고 있다”며 “녹록장은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온정적으로 해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중 유은혜 교육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다. 그는 ‘의원불매가 무너질 수도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문회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직무적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나타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적폐청산을 깃발을 들고 맨 앞에 내세워서 하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관리·매개·조정·전문지원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